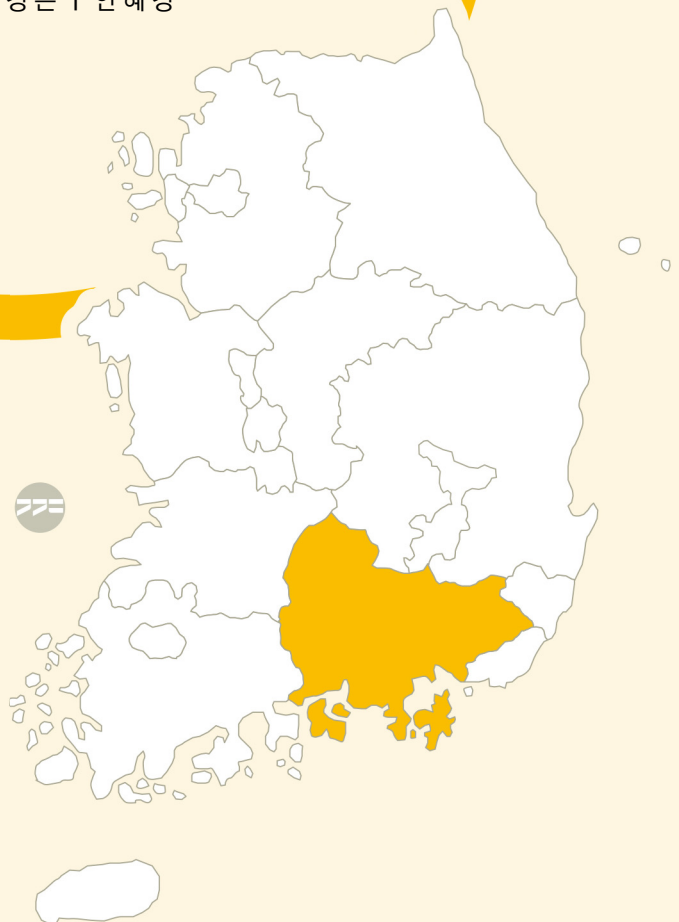




경남 20대 인구 유출에 대한 세부 원인 분석과 대책

유자영 | 이경은 | 안혜경





경남 20대 인구 유출에 대한 세부 원인 분석과 대책

연구진

- 유자영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경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안혜경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문연구원
-

I	서론	
	01. 연구배경	4
	02. 연구목적	5
	03. 분석방법	6
	0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6
II	경남 20대 청년인구 현황 분석	
	01. 경남 20대 청년인구 변화 추이	7
	02. 경남 20대 청년인구 이동 현황	10
III	경남 20대 청년인구 유출 원인 세부 분석	
	01. 분석개요	16
	02. 분석방법: 설문, 면담, 전문가 의견조사	18
	03. 경남 20대 청년의 출도 원인	19
	04. 출도 청년의 귀환가능성	25
	05. 경남 거주 청년의 만족도 및 정주가능성	28
IV	경남 20대 청년인구 유출 방지 대책	
	01. 정책방향	36
	02. 교육-일자리 분야	39
	03. 경남 어메니티 분야	42
	참고문헌	46
	부록	47

서론

1. 연구배경

□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

- 비수도권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은 오랫동안 사회적 이슈로 언급되어 왔지만, 최근 저출산·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나 지방소멸의 맥락에서 더욱 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과거에 비하여 지역 간 인구가동의 절대적 규모는 감소하였지만, 인구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이동¹⁾ 양상의 차이가 존재함
- 지방자치단체들은 해당 지역에 핵심생산인구인 청년층이 얼마나 많이 거주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맥락에서 지역을 떠나는가에 대해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음
- 이제까지 청년층 인구 유출 및 수도권 집중의 원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의 상황과 청년층의 특성을 면밀하게 고려한 시의성 있는 연구 및 정책대안 개발이 필요한 실정임

□ 경남 20대 청년인구 감소 및 유출 심화

- 경남 주력산업 침체로 인한 청년인구 유출현상 심화
 - 경남은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주도해 온 제조업 덕분에 타 지역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풍부하여 과거 오랜 기간 주변 청년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었음

1) 본 연구에서는 유입, 유출, 순이동, 순유입, 순유출 등 다양한 개념으로 경남 20대 청년인구 인구가동 현황을 설명함. 유입은 인구가 경남으로 전입(轉入)되는 것을 말하고, 유출은 인구가 경남에서 전출(轉出)되는 것을 말함. 또한 순이동은 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를 뺀 값을 말함. 순유입은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많아 순이동이 (+)인 경우이고, 순유출은 그 반대의 경우로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보다 많아 순이동이 (-)인 경우임

- 그러나 최근 제조업의 침체 및 스타트업 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경남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청년인구의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음
- **교육과 직업 요인에 인한 지속적 청년인구 유출 심화**
 -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청년인구(만15세~만39세)는 228만 5천 명으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동남권의 청년인구를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전출사유를 살펴본 결과, 2020년 15~19세는 교육, 직업, 20~24세는 직업, 교육, 25~29세는 직업, 주택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특히 경남의 경우 2008년과 2009년에는 20~30대 인구가 유입됐으나 2010년 이후로는 유출로 전환되었으며, 2016년부터는 유출이 급격히 증가함(엄창환 외, 2018)
- **세분화된 연령대별 청년인구 유출 사유 탐색 필요**
 - 교육 및 직업을 이유로 20대 청년인구들이 경남을 떠난다면, 그 사유에 해당하는 교육 및 직업의 구체적인 측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같은 20대 청년이지만, 20대 초반인지 중후반인지에 따라 그들이 경남에서 원하는 교육 수요나 직업수요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임
 - 즉, 경남 20대 인구가 어떤 교육, 어떤 직업을 찾아 경남을 떠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다면, 경남도의 청년인구 유출 방지 대책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2. 연구목적

- 경남 20대 세부 연령에 따른 유출 원인을 교육, 일자리, 주거, 문화 등 다양한 정책 분야 별로 검토함
- 경남 20대 청년의 정책 수요 조사를 통해 정주의사 및 만족도를 파악함
- 경남 상황에 부합하는 청년인구 유출 방지 대책을 제안함

3. 분석방법

- 경남출신 경상도 내 거주 20대 청년 대상 설문조사
- 경남출신 서울 거주 20대 청년 대상 면담조사
- 경상도 내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취업 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의견조사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경상도 20대 청년 유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 경상도 20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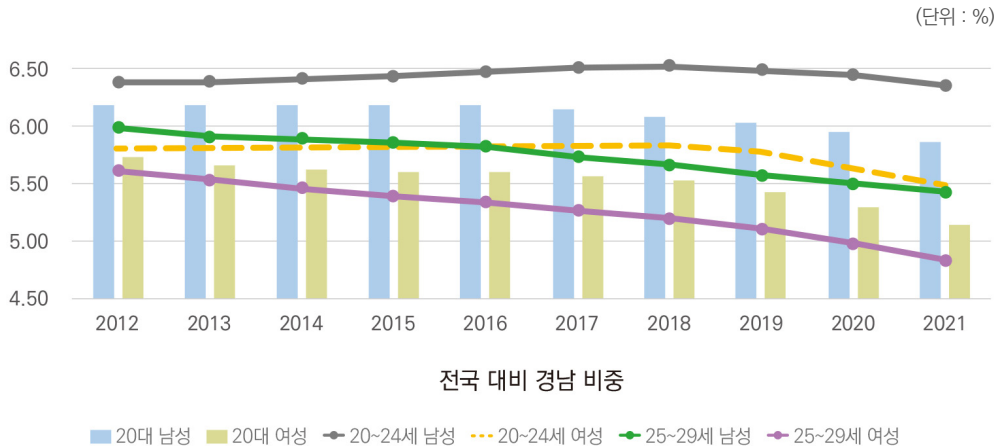
경남 20대 청년인구 현황 분석

1. 경남 20대 청년인구 변화 추이

□ 연령별·성별 증감률

- 전국 20대 청년인구 대비 경남의 비중²⁾ 변화를 시계열로 살펴보면, 여성 비중 감소폭이 남성 비중 감소폭에 비해 더 크며, 특히 20~24세 보다는 25~29세 인구의 전국 대비 경남 비중 감소폭이 성별과 관계없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 그림 1 ▶ 경남 20대 성별·연령별 청년인구 현황(2012~2021)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주민등록연앙인구

2) 전국 20대 청년인구 대비 경남 비중 지표를 통해 경남 20대 청년인구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그리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 혹은 감소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음. 인구변화 추이는 절대적 수치와 상대적 수치를 같이 고려하여 균형 잡힌 시각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표 1>에서 전국 20대 남성 청년인구 대비 경남 비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 6.17%에서 2021년 5.86%로 감소하였으며, 2016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임
 - 20~24세 보다는 25~29세 남성 청년인구 비중이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
- 전국 20대 여성 청년인구 대비 경남 비중을 살펴보면, 2012년 5.71%에서 2021년 5.14%로 감소하였으며, 2012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임
 - 특히 20~24세 보다는 25~29세 여성 청년인구 비중이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
- 지난 10년간 경남 20대 청년인구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20~24세에 비해 25~29세 청년인구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1>)
 - 지난 10년간 남성의 경우 20~24세 청년인구(△0.39%), 여성의 경우는 25~29세 청년인구(△1.37%)에서 더 빠르게 감소함을 알 수 있음
 - 전국 청년대비 경남의 비중을 지난 10년간 시계열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25~29세 청년인구(△0.98%p, △1.50%p)에서 더 큰 감소폭을 보임

◀ 표 1 ▶ 경남 20대 청년인구의 변화(2012~2021)

(단위: 만 명, %, %p)

구분	경남 청년인구								
	(전국 청년인구 대비 경남 비중)								
	전체			남성			여성		
	20대	20~24세	25~29세	20대	20~24세	25~29세	20대	20~24세	25~29세
2012	39.54	19.86	19.67	21.37	10.92	10.45	18.17	8.95	9.22
	(5.95)	(6.11)	(5.80)	(6.17)	(6.37)	(5.98)	(5.71)	(5.81)	(5.62)
2016	39.49	21.82	17.67	21.76	12.13	9.63	17.73	9.69	8.04
	(5.90)	(6.17)	(5.59)	(6.17)	(6.47)	(5.83)	(5.60)	(5.84)	(5.33)
2021	36.97	18.83	18.14	20.61	10.50	10.10	16.37	8.33	8.04
	(5.51)	(5.93)	(5.14)	(5.86)	(6.35)	(5.42)	(5.14)	(5.48)	(4.83)
10년간 연평균 증감률	△0.67	△0.53	△0.81	△0.36	△0.39	△0.34	△1.04	△0.71	△1.37
	(△0.76)	(△0.29)	(△1.21)	(△0.52)	(△0.03)	(△0.98)	(△1.05)	(△0.59)	(△1.50)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주민등록연앙인구

□ 지역별 증감률

- 경남 도내 군단위 지역에서 경남 20대 청년인구 감소가 특히 두드러지고 있음
 - 지난 10년간 경남의 20대 청년인구는 양산시(2.55%), 김해시(1.45%), 진주시(0.46%)에서만 증가하고, 그 외 15개 지역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지역은 하동군(△4.46%), 합천군(△3.86%), 고성군(△3.76%), 통영시(△3.74%), 남해군(△3.47%), 의령군(△3.38%) 순이었음

◀ 표 2 ▶ 경남 20대 지역별 연평균 청년인구 증감률 비교

(단위 : 만 명, %)

구분	2012	2016	2021	5년간 (2012~2016년) 연평균 청년인구 증감률(A)		10년간 (2012~2021년) 연평균 청년인구 증감률(B)		편차 (B-A)
진주시	4.27	4.38	4.48	0.47	(+)	0.46	(+)	△0.01
통영시	1.58	1.35	1.08	△3.15	(-)	△3.74	(-)	△0.58
사천시	1.19	1.13	1.05	△1.00	(-)	△1.27	(-)	△0.27
김해시	5.86	6.47	6.77	1.99	(+)	1.45	(+)	△0.54
밀양시	1.14	1.04	0.89	△1.74	(-)	△2.43	(-)	△0.70
거제시	2.90	2.91	2.35	0.07	(+)	△2.06	(-)	△2.14
양산시	3.11	3.68	4.00	3.45	(+)	2.55	(+)	△0.89
통합 창원시	14.71	14.16	12.74	△0.75	(-)	△1.42	(-)	△0.67
의령군	0.27	0.23	0.19	△3.47	(-)	△3.38	(-)	0.10
함안군	0.66	0.66	0.53	△0.05	(-)	△2.22	(-)	△2.16
창녕군	0.62	0.59	0.47	△0.74	(-)	△2.74	(-)	△2.00
고성군	0.56	0.47	0.38	△3.32	(-)	△3.76	(-)	△0.44
남해군	0.45	0.36	0.32	△4.24	(-)	△3.47	(-)	0.78
하동군	0.51	0.46	0.32	△1.92	(-)	△4.46	(-)	△2.54
산청군	0.30	0.28	0.24	△1.37	(-)	△2.32	(-)	△0.95
함양군	0.35	0.32	0.30	△1.36	(-)	△1.47	(-)	△0.11
거창군	0.63	0.62	0.58	△0.37	(-)	△0.84	(-)	△0.47
합천군	0.43	0.37	0.29	△3.07	(-)	△3.86	(-)	△0.79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주민등록연앙인구

주 : 편차(B-A)는 10년간 청년인구 증감률에서 5년간 청년인구 증감률을 뺀 값임. 의령군, 남해군의 경우, 지난 10년 간(2012~2021년), 지난 5년 간(2012~2016년) 청년인구는 줄었지만, 증감률 비교를 통해 그 감소의 폭은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의령군, 남해군의 청년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것을 의미함. 그 외 지역은 모두 증감률 감소 폭이 커졌고, 청년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을 말함

2. 경남 20대 청년인구 이동 현황

□ 연령별·성별 순이동 현황

- 경남 20대 청년인구는 2015년 이후 급격하게 유출되고 있는데,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소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연령별) 20~24세 청년인구가 25~29세에 비하여 순유출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24세 청년인구의 순유출 규모는 2016년 이후 급증하여, 2020년에 10.74천 명으로 최정점을 찍었고, 그 이후에는 순유출 정도가 완화됨
 - (성별) 전반적으로 여성 청년인구의 순유출 규모가 남성 청년인구의 순유출 규모에 비하여 크지만, 2021년에는 여성의 순유출 규모가 감소하여 남성의 순유출 규모와 유사해짐

◀ 표 3 ▶ 경남 20대 성별·연령별 청년인구 시도 간 순이동률(2012~2021)

(단위 : 명, %)

구분	남자		여자		20~24세		25~29세	
	순이동	순이동률	순이동	순이동률	순이동	순이동률	순이동	순이동률
2012	△3,040	△1.42	△2,786	△1.53	△4,938	△2.49	△888	△0.45
2013	△2,132	△1.01	△2,728	△1.53	△4,562	△2.23	△298	△0.16
2014	△2,450	△1.15	△2,727	△1.55	△4,500	△2.14	△677	△0.38
2015	△2,567	△1.19	△2,824	△1.60	△4,701	△2.18	△690	△0.39
2016	△3,990	△1.83	△3,300	△1.86	△5,219	△2.39	△2,071	△1.17
2017	△5,279	△2.42	△4,207	△2.36	△6,355	△2.93	△3,131	△1.74
2018	△5,511	△2.54	△5,466	△3.08	△7,013	△3.30	△3,964	△2.18
2019	△6,159	△2.86	△6,844	△3.92	△8,921	△4.33	△4,082	△2.22
2020	△7,344	△3.47	△9,076	△5.33	△10,738	△5.42	△5,682	△3.09
2021	△7,904	△3.84	△7,909	△4.83	△10,262	△5.45	△5,551	△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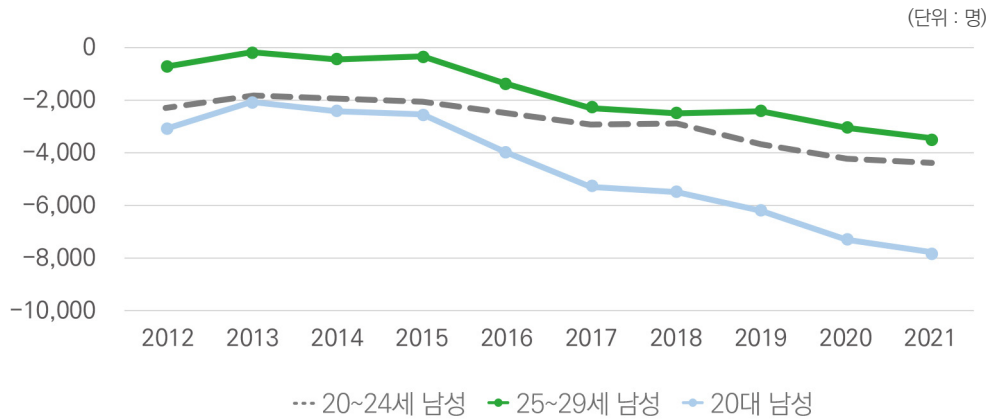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20대 남성 청년인구의 경우, 2015년, 2017년을 기점으로 순유출 규모가 급증하였으며, 20~24세 남성 청년인구가 25~29세에 비해 더 많이 유출되고 있음
 - 경남 20~24세 남성의 경우 순유출 규모가 완만하게 증가함

3) 유입은 인구가 경남으로 전입(轉入)되는 것을 말하고, 유출은 인구가 경남에서 전출(轉出)되는 것을 말함. 또한 순이동은 전입 인구에서 전출인구를 뺀 값을 말함. 순유입은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많아 순이동이 (+)인 경우이고, 순유출은 그 반대의 경우로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보다 많아 순이동이 (-)인 경우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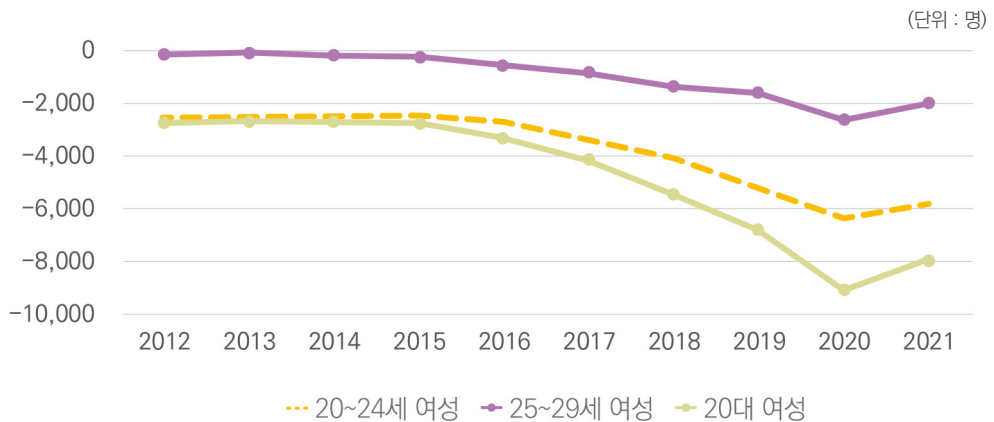
- 경남 25~29세 남성의 경우 2015년 이후 순유출이 급증하여 20~24세 남성의 순유출 규모와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음

◀ 그림 2 ▶ 경남 20대 남성 청년인구 순이동 현황(2012~2021)



- 20대 여성 청년인구의 경우, 2015년 이후 순유출 규모가 증가하여 2020년 순유출이 9.08천 명으로 최정점을 찍은 후, 2021년에는 순유출 증가가 다소 완화됨. 또한 20~24세 여성 청년인구가 25~29세에 비해 더 많이 유출되고 있음
 - 2016년 이후 경남 20~24세 여성의 순유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음
 - 경남 25~29세 여성의 순유출 규모는 20~24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함

◀ 그림 3 ▶ 경남 20대 여성 청년인구 순이동 현황(2012~2021)



- 시도 간 순이동률을 기준으로 경남 내 지역들을 청년인구가 순유입되는 지역과 순유출되는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2012년에는 거제시(3.42%), 양산시(0.90%), 김해시(0.36%)가 청년인구의 순유입 지역이었으나, 2016년에는 양산시(4.64%)만 순유입 지역으로 남았고, 2021년에는 모든 지역이 순유출 지역으로 전환됨
 - 거제시의 경우 2016년을 기점으로 주요 산업인 조선업의 불황이 시작되면서 청년인구 유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반면, 양산시는 대대적인 택지개발 및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청년인구가 유입되었다가 최근 다시 유출세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시도 간 순이동률을 5년 단위로 비교했을 시, 거제시(△4.61%), 함안군(△2.67%), 창녕군(△2.14%), 하동군(△2.01%)은 5년 사이에 2% 이상 순유출 규모가 있는 지역이었고, 남해군(1.04%), 진주시(0.26%)는 순유입 규모가 있는 지역이었음
 - 지난 10년간 평균 순유출 규모 큰 지역은 남해군(△10.50%), 하동군(△9.45%), 합천군(△7.84%), 고성군(△6.62%), 거창군(△6.48%) 순임

◀ 표 4 ▶ 경남 20대 지역별 청년인구 시도 간 순이동률(2012~2021)

(단위 : %)

구분	2012	2016	2021	5년간 (2012~2016년) 평균(A)		10년간 (2012~2021년) 평균(B)		편차 (B-A)
진주시	△2.14	△1.47	△1.18	△2.11	(-)	△1.85	(-)	0.26
통영시	△4.12	△4.10	△10.15	△3.80	(-)	△5.63	(-)	△1.83
사천시	△0.48	△2.37	△5.00	△1.65	(-)	△2.70	(-)	△1.05
김해시	0.36	△1.68	△4.19	△0.48	(-)	△1.48	(-)	△1.01
밀양시	△5.41	△3.44	△8.20	△4.97	(-)	△5.76	(-)	△0.78
거제시	3.42	△1.83	△9.03	3.56	(+)	△1.05	(-)	△4.61
양산시	0.90	4.64	△2.11	2.90	(+)	1.61	(+)	△1.29
통합창원시	△1.10	△2.29	△2.35	△1.95	(+)	△2.47	(-)	△0.52
의령군	△2.41	△6.02	△12.77	△6.33	(-)	△6.46	(-)	△0.13
함안군	△2.71	△4.74	△11.91	△2.62	(-)	△5.29	(-)	△2.67
창녕군	△2.93	△1.55	△10.38	△2.53	(-)	△4.67	(-)	△2.14
고성군	△5.69	△6.14	△9.33	△5.15	(-)	△6.62	(-)	△1.47
남해군	△17.60	△9.88	△13.94	△11.53	(-)	△10.50	(-)	1.04
하동군	△17.88	△5.32	△15.95	△7.44	(-)	△9.45	(-)	△2.01
산청군	△3.36	△1.76	△11.17	△3.81	(-)	△5.55	(-)	△1.74
함양군	△6.31	△4.03	△11.05	△5.43	(-)	△6.35	(-)	△0.92
거창군	△7.16	△5.60	△8.95	△5.54	(-)	△6.48	(-)	△0.93
합천군	△5.32	△9.71	△12.32	△6.34	(-)	△7.84	(-)	△1.50

출처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경남 20대 청년인구 이동 변화

- 경남 20대 청년인구는 서울로의 유출이 가장 크나,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고 2019년 이후부터 부산으로의 유출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임
 - 2021년 기준, 경남 20대 청년인구의 유출 규모는 서울(32.90%), 경기(21.31%), 부산(20.54%) 순으로 나타남
 - 2014년 이후부터 서울로의 유출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2019년 이후부터 부산으로의 유출 비중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2021년 기준, 경남 20~24세 청년인구 유출 비중은 서울(31.93%), 부산(28.80%), 경기(17.75%) 순으로 나타남
 - 경남 20~24세 청년인구의 서울로의 유출 비중은 오르내림을 반복하다 2019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감소한 반면, 부산으로의 유출 비중은 오르내림을 반복하다 2016년 이후부터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부산으로의 유출 비중 증가는 25~29세 청년에 비하여 20~24세 청년인구에서 두드러짐

◀ 표 5 ▶ 경남 20~24세 청년인구 유출(2012~2021)

(단위 : 명, %)

경남 →	20~24세 청년인구 (전국 대비 유출지 비중)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그 외
2012	2,318 (46.94)	117 (2.37)	723 (14.64)	972 (19.68)	77 (1.56)	171 (3.46)	151 (3.06)	409 (8.28)
2013	2,050 (44.94)	126 (2.76)	628 (13.77)	958 (21.00)	97 (2.13)	102 (2.24)	201 (4.41)	400 (8.77)
2014	2,229 (49.53)	141 (3.13)	608 (13.51)	812 (18.04)	113 (2.51)	126 (2.80)	133 (2.96)	338 (7.51)
2015	2,062 (43.86)	110 (2.34)	638 (13.57)	1,109 (23.59)	26 (0.55)	217 (4.62)	150 (3.19)	389 (8.27)
2016	2,438 (46.71)	173 (3.31)	791 (15.16)	844 (16.17)	△30 (△0.57)	263 (5.04)	145 (2.78)	595 (11.40)
2017	2,608 (41.04)	209 (3.29)	1,006 (15.83)	1,084 (17.06)	△36 (△0.57)	379 (5.96)	186 (2.93)	919 (14.46)
2018	2,986 (42.58)	259 (3.69)	1,117 (15.93)	1,398 (19.93)	△79 (△1.13)	368 (5.25)	217 (3.09)	747 (10.65)
2019	3,363 (37.70)	283 (3.17)	1,356 (15.20)	2,458 (27.55)	△39 (△0.44)	455 (5.10)	214 (2.40)	831 (9.32)
2020	3,779 (35.19)	348 (3.24)	1,819 (16.94)	2,784 (25.93)	△31 (△0.29)	866 (8.06)	149 (1.39)	1,024 (9.54)
2021	3,277 (31.93)	233 (2.27)	1,822 (17.75)	2,955 (28.80)	7 (0.07)	494 (4.81)	463 (4.51)	1,011 (9.85)

출처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주 : 예를 들어, 2012년 경남에서 서울로 유출된 20~24세 청년인구는 2,318명으로 해당 연도에 경남에서 유출된 전체 4,938명 중 46.94%에 해당함

- 2021년 기준, 경남 25~29세 청년인구 유출은 서울(34.70%), 경기(27.87%), 그 외(19.85%) 순으로 나타남
 - 이는 본격적으로 취업을 시작하게 되는 25~29세에 청년들이 서울과 경기로 이동하는 경향 때문으로 해석됨
 -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오히려 25~29세 청년들이 부산에서 경남으로 유입되었으나, 2020년부터는 경남에서 부산으로 청년인구가 유출되기 시작함
 - 또한, 대구, 울산, 경북 지역에서 경남으로 유입되던 25~29세 청년인구 규모는 점차 줄어, 최근에는 오히려 유출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경남의 제조업과 조선업 불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됨

◀ 표 6 ▶ 경남 25~29세 청년인구 유출(2012~2021)

(단위: 명, %)

경남 →	25~29세 청년인구							
	(전국 대비 유출지 비중)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그 외
2012	1,499 (168.81)	82 (9.23)	753 (84.80)	△1,731 (△194.93)	321 (36.15)	△279 (△31.42)	43 (4.84)	200 (22.52)
2013	1,233 (413.76)	17 (5.70)	652 (218.79)	△1,894 (△635.57)	224 (75.17)	△86 (△28.86)	△52 (△17.45)	204 (68.46)
2014	1,305 (192.76)	20 (2.95)	569 (84.05)	△1,491 (△220.24)	129 (19.05)	△120 (△17.73)	34 (5.02)	231 (34.12)
2015	1,093 (158.41)	47 (6.81)	493 (71.45)	△1,248 (△180.87)	125 (18.12)	△62 (△8.99)	△39 (△5.65)	281 (40.72)
2016	1,507 (72.77)	161 (7.77)	844 (40.75)	△1,045 (△50.46)	△10 (△0.48)	△3 (△0.14)	23 (1.11)	594 (28.68)
2017	1,977 (63.14)	188 (6.00)	1,135 (36.25)	△1,141 (△36.44)	△181 (△5.78)	218 (6.96)	197 (6.29)	738 (23.57)
2018	2,167 (54.67)	248 (6.26)	1,487 (37.51)	△1,217 (△30.70)	△47 (△1.19)	211 (5.32)	128 (3.23)	987 (24.90)
2019	2,240 (54.88)	237 (5.81)	1,356 (33.22)	△1,050 (△25.72)	134 (3.28)	26 (0.64)	174 (4.26)	965 (23.64)
2020	2,287 (40.25)	184 (3.24)	1,687 (29.69)	152 (2.68)	12 (0.21)	286 (5.03)	31 (0.55)	1,043 (18.36)
2021	1,926 (34.70)	217 (3.91)	1,547 (27.87)	293 (5.28)	143 (2.58)	109 (1.96)	214 (3.86)	1,102 (19.85)

출처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주 : 예를 들어, 2012년에는 오히려 부산에서 경남으로 25~29세 청년인구 1,731명이 유입되었으며, 이는 경남에서 순유출된 전체 청년인구 888명의 -194.93%에 해당함

□ 경남 20대 청년인구 이동 사유

- 경남 20대 청년인구의 이동 사유와 그 정도는 유입과 유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그 양상은 점차 변화하고 있음
 - 경남으로의 순유입이 발생하는 사유는 주로 가족요인에 근거하고, 경남으로부터 순유출이 발생하는 사유는 주로 교육과 직업요인에 근거함(김유현 외, 2020)⁴⁾
- 경남 청년인구 이동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성별, 연령, 지역 등 청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청년인구의 순유입과 순유출 사유를 분석해 왔으며, 연구 결과 청년인구의 순유입·유출의 주된 사유로 가족요인, 교육요인, 직업요인, 주택요인 등이 제시되어 왔음⁵⁾
 - (경남 청년인구 이동 사유) 2019년 기준으로는 가족에 의한 순유입, 직업과 교육 의한 순유출이 두드러졌으며, 주택에 의한 순유출은 감소하는 추세임(김유현 외, 2020)
 - (성별 경남 청년인구 이동 사유) 2015년 대비 2020년 직업에 의한 순유출 규모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반면, 교육에 의한 순유출 규모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큼(김유현, 2021)
 - (성별·연령별 경남 청년인구 이동 사유) 2015년 대비 2020년 직업에 의한 순유출 규모는 25~29세 남성 집단과, 19~24세 여성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교육에 의한 순유출 규모는 19~24세 여성 집단에서 크게 나타남(김유현, 2021)
 - (지역별 경남 청년인구 이동 사유) 2020년 기준, 직업과 교육에 의한 순유출 규모가 큰 지역은 창원, 김해, 진주, 거제, 양산, 통영 등 도시 지역이었으며, 주택에 의한 순유입 지역은 창원, 김해, 진주, 양산 등이었고, 그 외 지역은 모두 순유출 지역이었음(김유현, 2021)
- 결국 경남의 청년들은 가족요인으로 인해 경남으로 유입되고, 교육과 직업 등을 이유로 경남을 떠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 직업, 주거 등 정주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을 중심으로 유출의 세부 원인을 분석하고자 함

4) 직업 - 취업, 사업, 직장이전 등 | 가족 -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주택 - 주택구입, 계약만료, 집세, 재개발 등 | 교육 - 진학, 학업, 자녀교육 등 | 주거환경 - 교통, 문화, 편의시설 등 | 자연환경 -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으로 구분함

5) 다만, 해당 연구들은 청년의 연령 범위를 19~34세로 제시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는 20대 청년인구의 범위와는 상이하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음

경남 20대 청년인구 유출 원인 세부 분석

1. 분석개요

□ 문제의식

- 최근 청년인구의 지역이동은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사회문화적, 자연환경적 요인 등에 기인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음
- 경남의 20대 청년은 교육, 일자리, 문화, 사회적 관계 등 매우 다양한 요인을 이유로 지역에서 유출되고 있음
- 이는 지역 자체의 특성에 기인하기보다는 점차 청년인구의 특성이나 가치관의 영향에 근거한 선택의 결과로 볼 수 있음
 - 청년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단순히 높은 임금과 복지지원 등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 고용안정성, 성장가능성, 자율성 등 비경제적 요인으로 확장되고 있음
 - 이른바 '워라벨(Work-Life Balance)이 가능한 일자리'를 찾는 것도 이러한 맥락과 연관됨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일자리와 소득 보전에 초점을 둔 경제 중심의 청년 정책에서 그 외의 다양한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 청년정책으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왔음. 또한 이러한 정책의 목적은 이미 지역을 떠난 청년들을 귀환시키거나 외지 청년들을 새롭게 유입시키는 것을 포함함
- 경남의 청년인구의 순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경남을 떠난 청년들의 귀환 또는 외지 청년들의 유입에 대한 고민과 함께 경남에서 태어나 현재 경남에 거주 중인 청년들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고민해야 함
 - 기존의 연구 및 정책은 전자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반면, 후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두는 경향이 존재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들 두 집단을 균형 있게 분석하고자 함

□ 분석틀

- **경남 출신, 경남 거주 20대 청년인구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함**
 - 조사일 기준 경남 도내 거주 20대 청년 243명을 대상으로 경남 청년이 필요로 하는 경남도의 교육과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확인하고, 경남도에서의 정주 및 이주 의사와 연결하여 분석함. 이를 통해 이들을 경남도 내에 정주하게 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경남출신, 서울 거주 20대 청년인구 대상 FGI(Focus Group Interview: 집단심층면담)를 수행함**
 - 서울 소재의 남명학사*에 거주하는 경상남도 출신 10명의 청년을 면담함⁶⁾
 - * 남명학사는 경상남도 출신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기숙사로, 현재 창원관, 서울관 2개관이 운영되고 있음. 남명학사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대학생들에게 면학 여건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것과 더불어 지역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집단심층면담의 결과는 기존의 경남도 내 정책에 대한 평가 자료로 활용하며, 앞으로의 정책대안 마련에 참고 사항으로 활용하고자 함
- **추가적으로 경남 도내 대학, 취업고용지원센터, 청년센터 근무자 총 30명의 전문가 의견을 통해, 개별 청년들의 주관적인 상황을 좀 더 객관화하고자 함**
 - 이들은 경남도 내 20대 청년과 매우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며, 출도 청년들과 경남거주 청년들이 직면한 상황을 오랫동안 관찰해 온 주체로서, 이들의 의견을 통해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와 면담 대상의 적은 표본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음

◀ 표 7 ▶ 분석 대상

구분		경남 거주	비경남 거주
청년	경남 출신	20대 청년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
		유출 방지 방안 모색 정주 의사 분석	유출 원인 분석 귀환 의사 분석
전문가	현재 경남 거주 청년 교육 담당자, 구직 담당자	경남 도내 대학 근무자 지역 청년고용지원센터 청년센터 근무자 등	

6) 다만, 10명의 표본의 의견이 경남도의 출도 청년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경남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면담, 전문가 의견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2. 분석방법: 설문, 면담, 전문가 의견조사

□ 경남 20대 청년인구 대상 설문조사

- 분석개요
 - 경남 도내 거주 중인 20대 청년인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수행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온라인 조사 수행
- 조사대상: 경남 도내 거주 20대 청년 총 243명
- 설문문항: 지역사회문화, 수도권과 환경비교, 대학만족도, 진로 및 구직, 일자리, 일자리 충분도, 직업선택 요소, 선호 일자리, 원하는 교육, 정주의사, 이주의사, 귀환가능성, 정주를 위한 정책수요 등을 조사함
- 조사기간: 2023. 6. 12. ~ 16.

□ 경남 출신 서울 거주 20대 청년인구 집단 면담

- 분석개요
 - 경남 출신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들의 '경남'에 대한 인식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남명학사에 거주하는 20대 초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 집단심층 면담)를 실시함
- 면담대상: 경남도 출신 서울 거주 20대 대학생 10명(남명학사 거주)
- 면담내용
 - 20대 이전까지만 경남에서 거주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10대 때 경험, 교통환경, 교육, 지역 사회 분위기, 정책 수요, 경남으로의 귀환 가능성 등을 포함한 반구조화된 질문을 활용하여 진행함
- 조사기간: 2023. 6. 22.

□ 경남 도내 대학, 취업고용지원센터, 청년센터 근무자 의견조사

- **분석개요**
 - 경남 도내 거주 중인 20대 청년인구를 가장 많이 접하고, 그들의 고민, 상황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경남 도내 대학 교수 및 도내 취업고용지원센터, 청년센터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직면한 상황을 조사함
 - 경남 20대 청년들의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온라인 조사를 수행함
- **조사대상:** 경남 도내 대학 교수 및 취업고용지원센터, 청년센터 근무자 30명
- **설문방향:** 경남도 20대 청년들의 고민, 출도의 구체적인 사유(지역사회 분위기, 교육환경, 구직-창업환경, 주거환경, 여가, 관광, 문화환경 등)와 청년인구 유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 수요를 조사함
- **조사기간:** 2023. 6. 12. ~ 16.

3. 경남 20대 청년의 출도 원인

- 경남 20대 청년의 출도 원인에 대해서는 3가지 조사 방법 중 서울 소재 대학생 10명 및 경남 도내 대학 및 취업고용지원센터 근무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분석함
 - 경남 20대 청년의 출도 원인을 이미 경남을 떠난 서울 소재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 내용과 경남의 다양한 20대 청년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대학 내 근무자 및 취업고용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였음
- 가장 언급 빈도가 높았던 교육 및 일자리, 기타(문화, 여가, 교통) 요인으로 구분하여 경남 20대 청년의 출도 원인을 제시하였음

□ 교육 요인

-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경험이 출도에 영향을 미침

- 지역에서는 대학 교육이 시작되는 만 19세 전후로 청년인구의 1차 유출이 시작되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는 시점에 2차 유출이 시작됨
- 교육환경은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그 청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연결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직접 경험한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은 이들의 이주 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권요규·마강래, 2012; 송용창·김민곤, 2016; 유재연, 2015; 오윤석 외, 2022; 오은열·문채, 2016)
- **세부 연령에 따라 상이한 교육수요가 존재하지만 이를 충족할 정책대안이 부재함**
 - 전문가 의견조사에 따르면, 20대 초반의 경우 새롭고, 추가적인 대학 교육을 받기 위해 경남을 떠나지만(약 60.9%), 20대 중후반은 대학교육(약 36.36%)과 직업교육(31.82%)으로 양분된 교육 수요를 보여줌
 - 만약 경남도가 청년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설계한다면, 단순히 ‘양질의 교육 환경 조성’이라는 포괄적인 방향 외에도 정책대상의 연령에 따라 교육정책의 포커스를 상이하게 두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경남 대학 교육의 낮은 브랜드 평판과 지역 내 기업과의 연계 미비에 대해서 지적함**
 - 경남 내 국립대학은 그 위상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고,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 뿌리내리게 하는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함
 - 실제 경남뿐만 아니라 많은 지방의 거점 국공립대학의 재학생들은 졸업 이후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원하는 기업으로의 취업을 위해 타지역으로 이주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임(박순철·도수관, 2023)
 - 이는 곧 경남 내에서 20대 청년의 수요에 부합하는 일자리의 양과 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문가들은 지역 내 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 미비(36.4%), 낮은 브랜드 평판(27.7%) 등을 경남 대학 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함
 - 이러한 인식은 경남 출신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이 아닌, 서울 및 수도권 대학의 ‘네임밸류’ 때문에 대학을 선택했다는 언급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경남에 남은 유능한 청년들도 다시 수도권 대학으로 옮기거나, 도내 대학에서 인턴십이나 공모전을 연계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졸업 후 수도권으로 이주를 결심하기도 함
- **대학교육과 취업 및 다양한 삶의 기회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 대학교육을 이유로 출도한 경우 이후에 귀환가능성이 낮으며, 일자리를 경남 밖에서 얻고자 하는 경우 역시, 그 이전부터 출도를 계획하는 경향을 보임**

- 최근에는 대학 진학 이전에 대경권이나 부산광역시 고등학교로 진학하거나, 근처 도시로 이전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경남 도내 군 단위 지역 출신 청년들은 본인들이 경험한 열악한 교육환경 및 인프라가 단순히 대학교육 수준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 결혼, 출산, 육아 등 이후의 다양한 삶의 기회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음
- 즉, 대학 교육을 위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이주한 청년들은 졸업 이후, 취업이나 삶의 다양한 기회 및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주 결정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결정이 매우 복합적인 측면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음(이찬영·이홍우, 2016; 이찬영 외 2016)

□ 일자리 요인

- 전문가들은 20대 청년들이 그들의 성별, 학력, 연령 등 다양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경남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로 '일자리' 요인이라고 보고 있음
 - 물론 청년의 성별, 학력, 연령에 따라 일자리 요인으로 출도한다는 응답의 빈도는 차이가 있음
 - 남성청년이 여성청년에 비해서, 학력이 높은 청년일수록, 나이가 많은 청년일수록 일자리 요인을 이유로 경남을 떠난다고 응답한 비중이 커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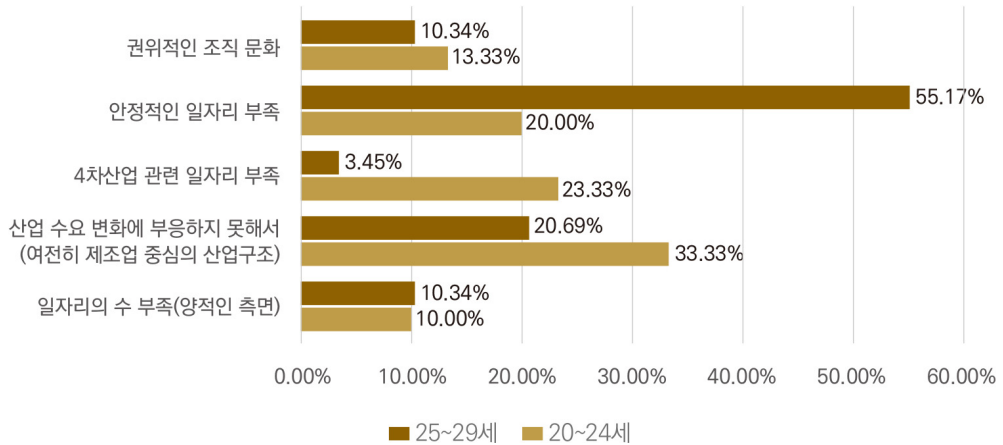
◀ 표 8 ▶ 청년 특성에 따른 경남 이주 사유

	구분	지역사회 분위기	교육 환경	직업 (일자리)	주거 환경	여가·관광· 문화환경	교통	전체
성별	여성	2(6.90)	1(3.45)	20(68.97)	3(10.34)	2(6.90)	1(3.45)	29
	남성	3(11.54)	0(0.00)	20(76.92)	2(7.69)	0(0.00)	1(3.85)	26
학력	고졸 미만	5(20.00)	2(8.00)	15(60.00)	1(4.00)	0(0.00)	2(8.00)	25
	고졸 이상~ 대졸 미만	5(18.52)	3(11.11)	17(62.96)	1(3.70)	0(0.00)	1(3.70)	27
	대졸 이상	1(3.33)	1(3.33)	26(86.67)	1(3.33)	0(0.00)	1(3.33)	30
연령	20대 초반	4(15.38)	6(23.08)	10(38.46)	1(3.85)	4(15.38)	1(3.85)	26
	20대 중후반	2(6.67)	2(6.67)	19(63.33)	3(10.00)	3(10.00)	1(3.33)	30

* 전문가 의견조사 대상은 총 30명으로, 각각의 항목에 모두 응답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목별 전체 응답자 수가 다르게 표기됨 (예를 들어, 청년의 성별 특성에 따른 경남 이주 사유에 대하여 여성청년에 대해서는 29명의 전문가가 응답하였고, 남성청년에 대해서는 26명의 전문가가 응답하였음)

- 구체적으로 일자리 요인의 어떤 측면이 20대의 유출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연령대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경향을 보임
 - 전문가 의견조사에 따르면, 20대 초반의 경우 경남의 산업구조가 '산업 수요 변화에 부응하지 못해서(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고, 20대 중후반의 경우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으로 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음
 - 20대 중후반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으로 출도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약 55.17%로 수렴하여 다른 요인에 비해 그 비중이 상당히 큼을 알 수 있음

◀ 그림 4 ▶ 경남 20대 청년인구 유출 원인 : 직업 및 일자리 요인 측면



출처 : 경남 도내 대학 및 취업고용지원센터 근무자 의견조사 분석결과

- 경남 출신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면담한 결과, 경남에는 다양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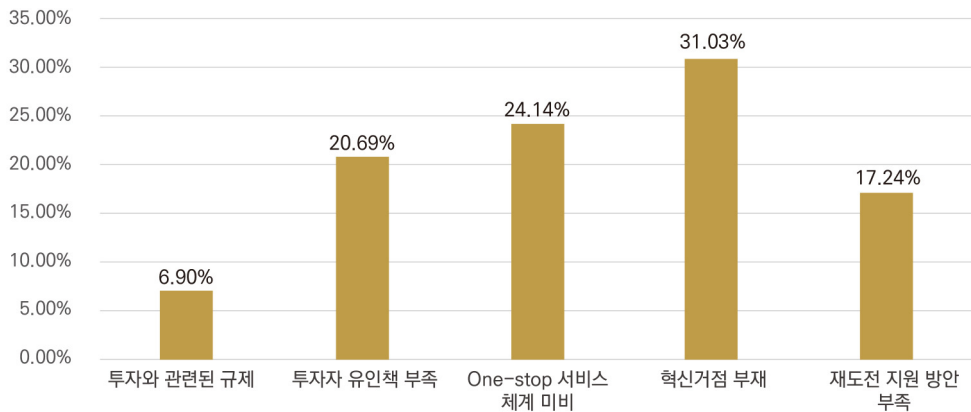
서울 소재 대학생 면담 내용

- 전공에 적합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구직은 당연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하고자 한다고 언급함
- 제조업에 종사한 주변 어른들을 보고 자란 경남 출신 청년들은 경남의 일자리가 너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고 언급함
- 정말 힘든 일자리 밖에 없다고 언급함

- 한편,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경남 청년들을 위한 창업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도 언급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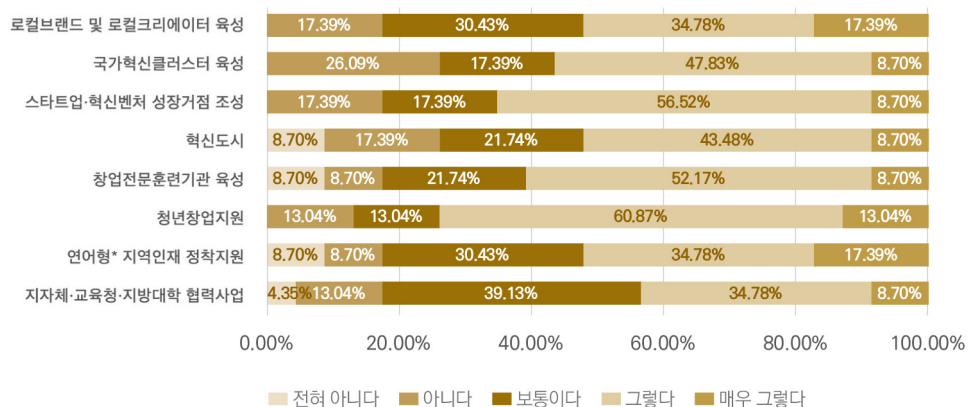
- 경남이 직면한 창업환경의 문제점으로 '창업 혁신거점 부재(31.03%)', '창업 관련 One-stop 서비스 체계 미비(24.14%)' 등이 주로 언급되었고, 경남 20대 청년인구 유출 감소에 기여하는 정부 정책으로 '청년창업지원(3.8)'을 꼽았다는 점에서 경남 20대 청년들의 정주를 위해서 적절한 창업환경 구축이 필요함을 확인함
- 지역에서 창업의 어려움을 느낄수록 청년인구의 유출 가능성이 증가하고, '안정적 일자리'를 선호하는 청년 비중이 높을수록 지역 내 청년의 정착 수준이 높아짐(엄창욱 외, 2018)
- 다만, 최근 주체적 성향을 보이는 청년세대의 경우 지역의 '창업', '청년센터', '청년정책' 등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창업요인들이 청년세대의 지역 정착 수준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도 존재함

◀ 그림 5 ▶ 경남 20대 청년인구 유출 원인 : 창업환경 측면 문제점



출처 : 경남 도내 대학 및 취업고용지원센터 근무자 의견조사 분석결과

◀ 그림 6 ▶ 경남 20대 청년인구 유출 감소 정책에 대한 기대효과



출처 : 경남 도내 대학 및 취업고용지원센터 근무자 의견조사 분석결과

-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삶을 운용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보다 개인의 삶과 지역사회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에도 관심이 많음을 확인함

서울 소재 대학생 면담 내용

- 지역 내 인구 고령화로 인해 조직의 말단으로 입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큼
- 정부에서 제공하는 창업정책지원금 관심 많음
- 지역 내 고유 아이템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음
- 지역사회 내 고령인구 대상 창업으로 지역에 기여하고자 하는 학생도 확인할 수 있었음

□ 기타: 문화, 여가, 교통

● 열악한 문화, 여가 환경 및 교통 인프라로 청년인구 유출이 심화됨

- 실제 10대 청소년 시기를 경남에서 보내고, 서울로 이동한 20대의 경우 경남의 문화 및 여가 인프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경남도 내 주요 '시' 보다 '군' 출신 청년들에서 더 강하게 나타남
- 친구와의 사회적 관계망이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함께 공유할 콘텐츠와 공간이 부재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경우, 또 지역 내 보다는 인근 광역시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경우 지역애착 형성 기회가 낮아짐
-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문화, 여가 인프라 수준이 낮기 때문에 20대 청년 유출이 가속화 된다고 언급함
- 문화나 여가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쾌적함과 즐거움 향유를 가능하게 하는 어메니티가 지역 인구 유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들(김현우·강명구, 2020; 엄창욱 외, 2018)과도 유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음
- 지역의 문화, 여가, 교통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는 비단 청년인구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층에서도 정주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엄창욱 외, 2018; 이찬영, 2018; 이현국, 2019)

서울 소재 대학생 면담 내용

- 10대, 청소년기의 경험이 크게 작용함(남해군)
- 문화 콘텐츠 부족, 열악한 대중교통을 경험한 이후 남해군 탈출을 결심함

- 그러나 모든 군지역에 생활 등 각종 시설과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군지역에 거점지역을 설정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출도 청년의 귀환가능성

- 출도 청년의 귀환가능성에 대해서는 3가지 조사 방법 중 경남 출신 서울 소재 대학생 10명의 의견과 경남 거주 청년대상 설문조사 내용을 취합하여 분석함
 - 현재 경남을 떠난 학생들의 귀환가능성에 대하여 서울 소재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면담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였음
- 면담대상자의 대부분은 경남으로의 귀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응답하였고, 만약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30~40대 이후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 이들의 낮은 귀환가능성의 원인을 크게 청소년 시절 교육·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결핍, 전공 적합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미래 설계의 제약, 기회,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 청소년 시절 교육·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결핍

- 문화·여가 및 교통 인프라 부족이 출도 청년의 낮은 귀환가능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
 - 경남의 군 지역 출신의 청년들은 지역 내에서 청소년 및 청년이 누릴 수 있는 문화 및 여가 환경 부족을 언급함
 - 공연, 전시 등의 문화 콘텐츠는 주로 수도권에서 시작되어 광역시 수준에서만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경향은 연령이 낮을수록 부각됨
 - 특히 문화 인프라가 한정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 지방의 특성상, 주변 지역으로 이동해서라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면, 정주의사가 높아질 수 있음
 - 따라서 지역 간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대중교통 확충은 청년인구의 경남 귀환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음

-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적 관계망 유지를 위해 귀환을 주저함
 - 출도 청년들은 대학 생활을 통해 새롭게 형성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며,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형성한 사회적 관계망이 '더 나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 20대에게 있어 사회적 관계는 그것이 일시적이고 일상에서의 사소한 사항이더라도 작은 위안과 만족감을 제공해주고, 자존감을 높이는 기능을 함
- 보수적인 지역 분위기로 인한 꿈, 미래를 재단당한 경험이 있어 귀환을 주저함
 - 보수적인 지역 문화는 여성 청년들에게 한정된 직업과 미래 모습을 주입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지역 문화는 청년들이 지향하는 다양한 형태의 삶이 수용될 것이라는 청년들의 기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함
 - 청소년기에 경험한 지역 분위기 및 문화는 청년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기보다, 가능성을 제한하고, 희망을 재단하였고,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지역사회로의 귀환을 고려하지 않게 됨

서울 소재 대학생 면담 내용

- 여전히 여성의 직업은 교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지역 분위기가 팽배함
- 컴퓨터공학을 전공해서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은 여성 청년에 대한 부정적인 '상'을 지움
- 청년들의 비혼 가치관을 이해받지 못함

□ 전공 적합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미래 설계의 제약

- 전공 부합 일자리의 양과 질 부족으로 낮은 귀환 의사를 표명함
 - 경남 도내 일자리의 양과 질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기존 연구들에서도 꾸준히 언급되어 왔으며, 특히, 인문계열 전공 대학생의 경우 경남에서 전공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얻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 안정적인 일자리, 임금과 복지수준이 충분하게 보상이 되는 일자리 등이지만, 경남 도내에 이러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음
 - 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우, 경남으로 귀환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20대 청년들의 경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

- 간호사, 의사, 변호사 등 지역 구속력 낮은 직업은 경남 귀환 가능성 높음
 - 간호사, 의사, 변호사 등의 직종은 지역 구속력이 낮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할 때 경남으로 귀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이들도 대학 졸업 직후 경남으로 귀환하기보다, 서울에서 경력을 쌓고, 경제적 안정을 이룬 후 경남으로 귀환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임

□ 기회,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

- 경남 출신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은 문화 및 여가 만족, 사회적 관계망, 원하는 일자리 등으로 인해 대부분이 서울에 정착하기를 희망함
- 이러한 정착에 대한 의지 및 결정은 단순히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만을 근거로 하기보다 본인들이 경험한 '과거'의 삶에 대한 평가와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음
 - 대학 졸업, 취직, 결혼 및 출산 등 앞으로의 삶을 고려하면 당장은 경남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통해 이를 유추해볼 수 있음
 - 특히, 출도한 청년들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취업 기회나 정보를 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남으로 돌아갈 이유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음
- 이러한 맥락에서 2020년부터 시작된 경남의 '청년특별도'⁷⁾ 도정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교육 및 일자리 요인으로 인해 출도한 청년들은 경남의 핵심생산인구로서 귀환 가능성이 전반적으로 낮다고 판단되기 때문임
 - 청년특별도는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고', 찾아오는 지역을 추구하지만, 이러한 포괄적인 방향보다, 현재 경남도내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 집중된 정책이 필요함

7) 경남도는 2021년에 '경남도 청년 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고, 일자리와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함. 구체적으로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선정,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 강화, 반값 청년 주택 등 맞춤형 청년주택 공급 확대, 청년 월세·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을 추진하였음

5. 경남 거주 청년의 만족도 및 정주가능성

- 경남 거주 청년의 만족도 및 정주가능성에 대해서는 경남도 거주 20대 청년 234명(만 19~28세, 성별 표시한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취합하여 분석함

□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 경남도 거주 20대 청년 234명(만 19~28세, 성별 모두 표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들은 경남도에서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임
 - 수도권에 비하여 경남의 전반적 생활여건, 교육환경, 구직환경, 주거환경, 여가·관광·문화 환경, 청년에 대한 존중 및 수용성 등의 요인*에 대하여 평균적으로 '보통' 이상으로 평가함
 - * 전반적 생활여건(3.74), 교육환경(3.75), 구직환경(3.44), 주거환경(3.88), 여가·관광·문화 환경(3.89), 청년에 대한 존중 및 수용성(3.70)
 - 그 중, 구직환경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경남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구직을 위해 출도한다는 기존 연구 및 통계 경향과 유사함
- 청년들이 경남에서의 삶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현상은 오늘날 청년들이 자신의 객관적 삶의 수준과 주관적 행복이 괴리되는 후기 근대 청년들의 세대적 특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이순미, 2018)
 - 교육-취업-결혼 등 생애과정의 단계가 매우 불확실해지면서, 청년들은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기성세대와 다르게 규정하며, 이로 인해 객관적 삶의 조건이 열악해졌음에도 낙관적 태도를 보이는 '청년패러독스'가 나타남(Blatterer, 2010; Wyn and White, 2000; 이순미, 2018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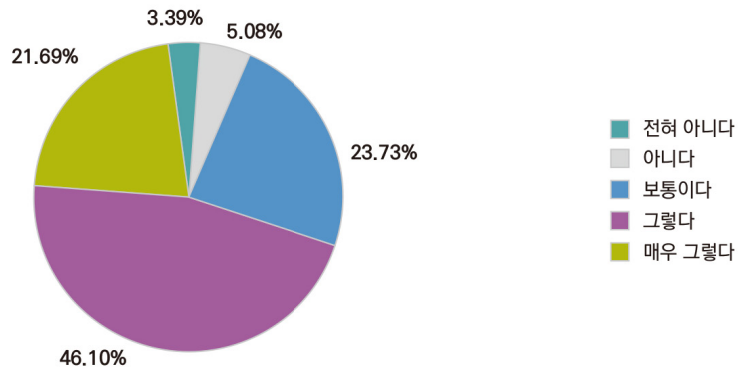
□ 경남의 교육 및 일자리 만족도

- 경남 거주 20대 청년들의 대학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대학교육과 취업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함
 - 취업가능성, 복지수준 만족도, 원하는 일자리와 연계 가능성, 추가 대학교육 계획여부, 경남 도내 대학 역량 만족도 등을 묻는 문항을 5점 척도로 물었을 때, 3.39~3.78의 범위에서 응답했다는 점에서 경남 도내 대학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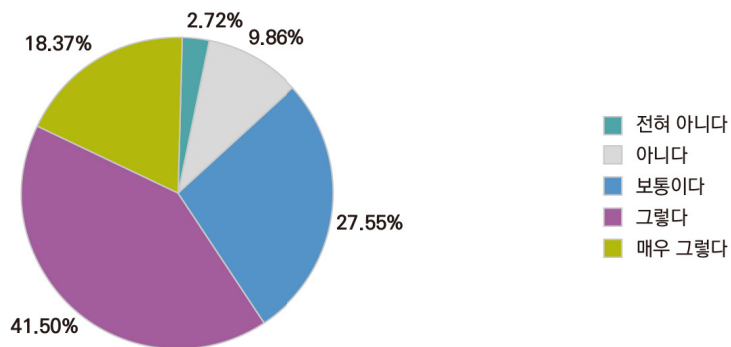
- 특히 '본교 선택 시 취업가능성을 고려하였다(취업가능성)', '본교에서 제공되는 교육과정을 마치고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원하는 일자리와 연계 가능성)' 문항에 대해 각각 전체 응답자의 67.79%, 59.87% 정도가 긍정적으로 대답함

◀ 그림 7 ▶ 경남 대학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본교 선택시 취업가능성을 고려하였다



교육과정을 마치고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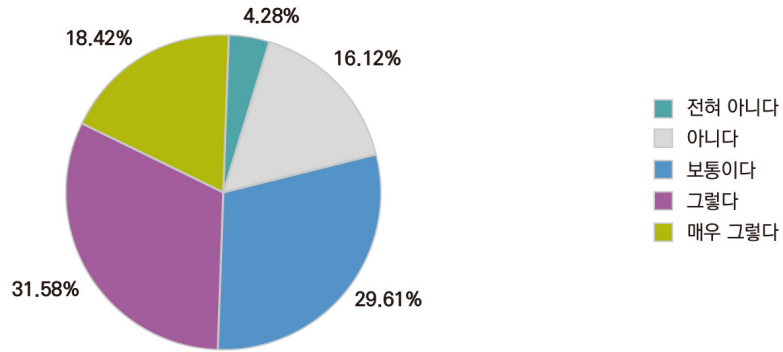


출처 : 경남 20대 청년인구 대상 설문조사 분석결과

- 인턴 등 일자리 체험 및 경력개발 기회에 대하여 충분하다고 생각함
 - 지역 내 진로탐색 및 구직과 관련하여 '인턴 등 일자리 체험 및 경력개발 기회가 충분한 편이다'라는 의견에 응답자의 약 50%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음
 - 다만,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특정 직종과 관련한 직무훈련'의 부족으로 20대 중후반 청년들이 경남을 떠난다고 언급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실에 대한 인식 및 평가가 다소 엇갈리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림 8 ▶ 진로탐색 및 구직

인턴 등 일자리 체험 및 경력개발 기회가 많은 편이다



출처 : 경남 20대 청년인구 대상 설문조사 분석결과

- 또한, 경남 출신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들이 바라보는 경남 청년들의 모습과는 다소 다르다고 판단되는데, FGI에서 경남에 남은 청년들이 인턴, 공모전 등의 기회가 부족해서 의기소침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고 언급했기 때문임

서울 소재 대학생 면담 내용

- 경남에서 대학 다니는 친구들이 취업 준비할 때 즈음, 공모전, 인턴, 프로그램 부족하다는 언급을 자주함
- 서울에 사는 것만으로 많은 기회를 부여받고 있다는 시각을 보임

- 이러한 결과는 경남 청년들이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생의 환경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지역 사회의 기회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양과 질의 충분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함

- 지역 내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이 충분한지에 대한 문항에 대하여 경남 내 거주 20대 청년들의 5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청년 일자리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55.59%, 질적인 측면에서는 51.9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질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가 다소 낮음

◀ 표 9 ▶ 직업 및 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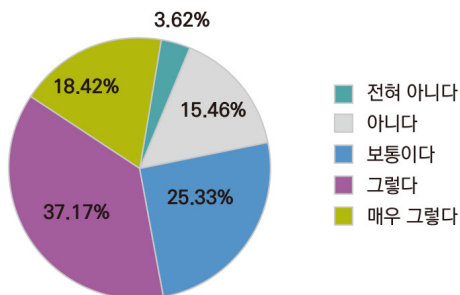
문항	수준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역 내 청년일자리 양은 충분한 편이다.	3.62	15.46	25.33	37.17	18.42
지역 내 청년일자리 종류는 다양한 편이다.	7.24	14.80	25.99	34.54	17.43

출처 : 경남 20대 청년인구 대상 설문조사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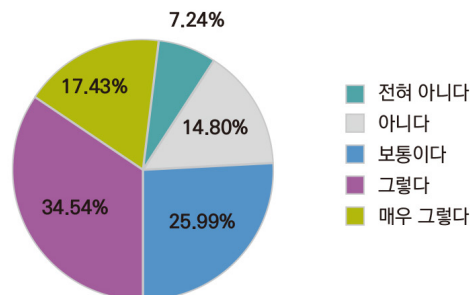
- 많은 청년들이 워라밸이 좋은 일자리, 임금 수준이 높은 일자리, 대기업, 안정적이고 복지 후생이 확보된 일자리가 경남에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 이는 직업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하여 급여, 복리후생 등 경제적 보상이 좋은 일자리, 고용안정성, 워라밸을 포함한 근무환경 등을 선택한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과거에는 경남의 제조업 생산시설의 정규직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었지만, 오늘날 청년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또한 주력산업 대기업의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일자리 양극화로 대비되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처우는 지금 청년들이 원하는 경제적 보상과 적성 및 흥미, 고용 안정, 일 가정 양립 문화에 부합하지 않음(김유현 외, 2020)

◀ 그림 9 ▶ 진로탐색 및 구직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양은 충분한 편이다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종류는 다양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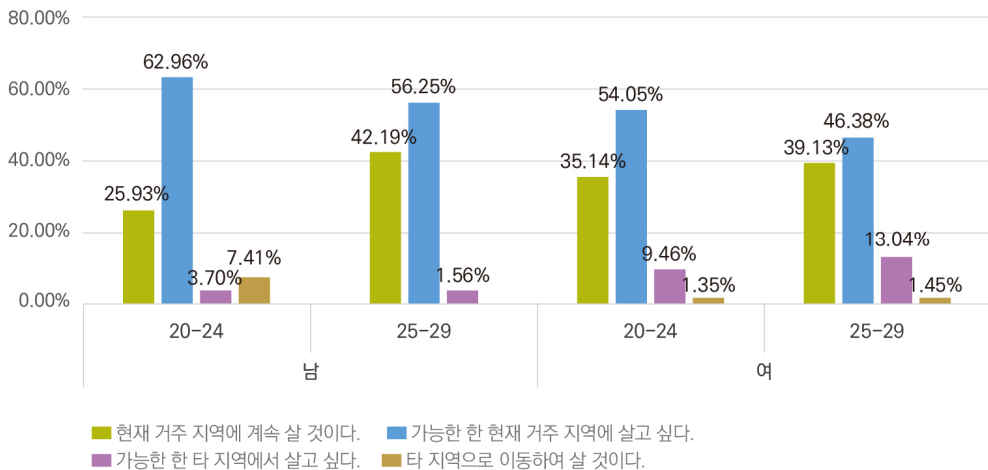


출처 : 경남 20대 청년인구 대상 설문조사 분석결과

□ 정주 가능성 및 향후 이주 가능성

- 현재 경남에서 거주 중인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대부분의 20대 청년들은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계속 살고 싶은 의향을 보임
 - ‘현재 거주 지역에 계속 살 것이다(37.62%)’, ‘가능한 한 현재 거주 지역에 살고 싶다(52.15%)’ 등 현재 경남 지역에서의 정주 의사를 밝힌 응답자가 전체의 89.67%에 해당함. 사유로는 ‘가족과 가까이 살고 싶어서(36.8%)’, ‘경남 경제 개선 가능성이 있어서(20.2%)’ 등이 높게 나타남
 - 이는 곧 응답자의 약 10.23%만이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의사를 밝혔음을 의미함. 그 사유는 통근, 통학 등 교통이 불편해서(약 18.1%),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문화가 맞지 않아서(17.1%), 일자리가 부족해서(17.1%) 등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정주의사를 가진 여성 청년의 비중보다 정주 의사를 가진 남성 청년의 비중이 높았으며, 남성의 경우 정주 의사를 가진 청년의 비중이 20대 초반 집단에서보다 20대 중후반 집단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20대 중후반 집단에서보다 20대 초반 집단에서 정주 의사를 가진 청년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음

◀ 그림 10 ▶ 정주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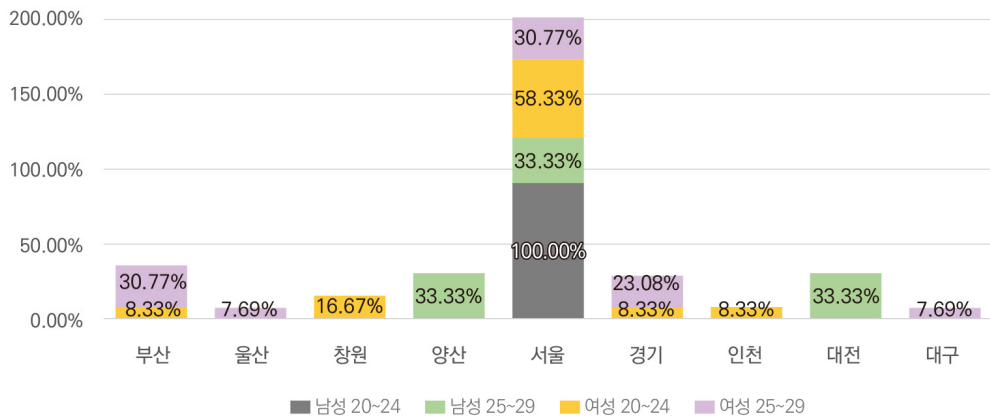


출처 : 경남 20대 청년인구 대상 설문조사 분석결과

- 장기적 경기 침체, 보수적 지역 문화, 수도권의 다양한 문화, 사회적 관계, 자연 친화적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지역 청년의 이주 결정에 영향을 미침

- 오늘날 청년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공동체보다 개인을 중시하고, 익숙한 환경보다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도전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김현우, 2023)
-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와 소득 등으로 언급되는 경제적 기회와 성과에서 배제되고 점차 증가하는 불확실성 안에서 개인의 경험과 다양성을 중시하면서 경쟁과 성과에 대하여 삶의 가중치를 낮추는 경향이 있음
- **경남지역에 정주 의사가 없는 경우는 30명 정도로, 전체의 약 13%에 해당함**
 - 이주하고 싶은 지역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서울, 부산광역시, 경기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⁸⁾ 서울을 언급한 응답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큼
 - 이미 서울에 거주 중인 경남출신 20대의 경우 경남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돌아간다면 대부분이 '창원시'라고 응답하였으며, 출신지역이 '군'인 경우에도 대부분이 '창원시'를 경남에서 가장 정주하고 싶은 지역으로 언급함
 - 이를 통해 20대 청년들이 원하는 거주지가 서울, 수도권을 포함한 도시형임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림 11 ▶ 이주하고 싶은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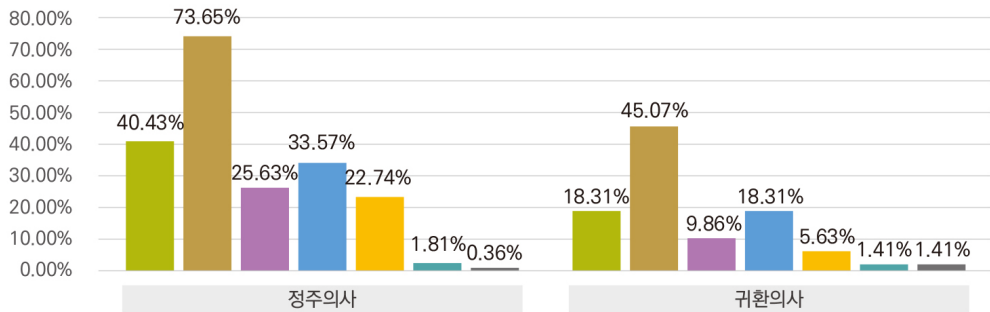
출처 : 경남 20대 청년인구 대상 설문조사 분석결과

- **현재 경남에 거주하는 청년들 중 향후 경남에 정주 의사를 밝힌 응답자들은 그 원인으로 가족 요인(가족과 가까이 살고 싶어서, 약 73.65%)을 선택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8) 경남 내 9명(30%), 경남 외 21명(70%)로 확인되었지만, 한 응답자 중에 여러 곳을 쓴 경우, 여러 다수의 응답자로 적용하였음

- 그 다음으로 경남 경제 개선 가능성이 있어서(40.43%),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33.57%) 등의 요인이 높게 나타남
- 한편, 현재 경남에 거주하는 청년들 중 향후 이주 의사를 밝힌 응답자들 중에서 만약 귀환한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가족 요인(가족과 가까이 살고 싶어서, 약 45.07%)을 선택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경남 경제 개선 가능성이 있어서(40.43%)와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18.31%) 등의 요인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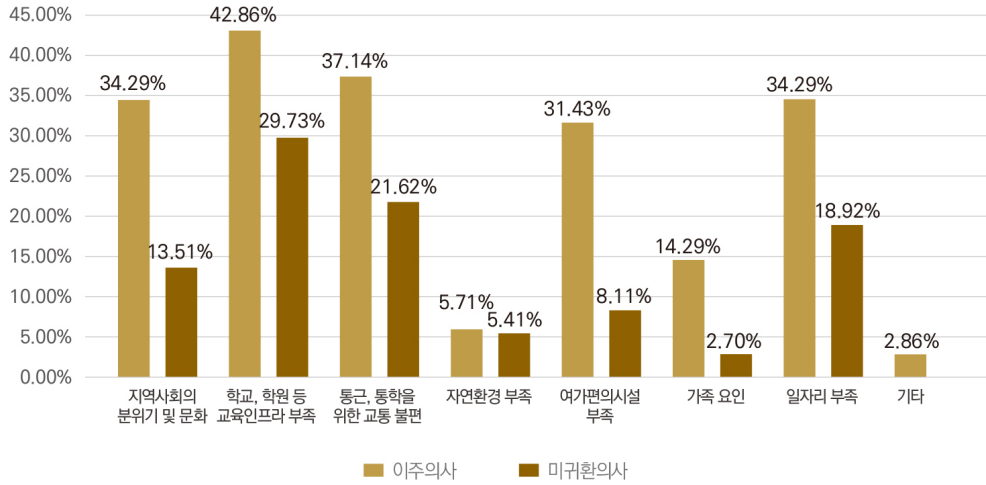
◀ 그림 12 ▶ 정주의사 및 귀환의사



출처 : 경남 20대 청년인구 대상 설문조사 분석결과

- 현재 경남에 거주하는 청년들 중 향후 타 지역으로 이주 의사를 밝힌 응답자들 중 그 원인으로 학교, 학원 등 교육인프라 부족(약 42.86%)을 선택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통근, 통학 등 교통이 불편해서(37.14%), 일자리 부족(34.29%), 지역사회 분위기가 맞지 않아서(34.29%) 등 순서로 나타남
- 이주 의사를 밝힌 응답자들 중 경남으로 다시 귀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학교, 학원 등 교육인프라 부족(약 29.73%)을 가장 많이 언급함
- 그 다음으로 통근, 통학 등 교통이 불편해서(21.62%), 일자리 부족(18.92%) 등 순서로 나타남
- 대체로 이주 의사와 미귀환의 주된 사유는 '학교, 학원 등 교육인프라 부족', '통근, 통학 등 교통이 불편해서' 등으로 유사하게 나타남

◀ 그림 13 ▶ 이주 의사 및 미귀환 의사



출처 : 경남 20대 청년인구 대상 설문조사 분석결과

IV

경남 20대 청년인구 유출 방지 대책

1. 정책방향

□ 청년의 미래 설계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 청년의 거주지에 대한 선택은 개인적인 선호 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의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짐
- 20대는 생애주기 측면에서 아직 '성장기'에 해당하며,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30대를 포함한 미래를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20대 청년인구에게 있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시스템이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등은 그 어떤 요소보다 중요할 수 있으나, 경남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만큼 관련 요소들을 잘 갖추고 있지 못함
 - 물론 비수도권에서도 수도권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프로그램들을 일정 부분 접할 수 있지만, 청년들은 비수도권에 대한 선입견이나 향후 직업 선택을 고려하여 수도권으로 미리 이동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음
- 결국 경남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비수도권에서도 성공한 미래를 그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지역에 청년들이 만족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은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적당한 급여, 복지를 비롯한 일-생활 균형, 건전한 조직 문화 등 다양한 욕구가 일정 수준 이상 충족되는 일자리가 부족함을 의미함
- 따라서 지자체는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들을 단편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청년의 미래 설계를 전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이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자원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교육,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거, 문화 등의 요소들도 함께 보장되어야 하며,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사회연결망 구축이 전제될 필요가 있음

□ 경남 거주 20대 청년에게 다양한 경험 기회 제공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경남의 20대 청년들의 교육, 일자리, 문화, 주거, 지역 문화 등을 검토한 결과, 이미 출도한 경남출신 청년들의 귀환가능성과 현재 경남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경남의 정주가능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함
 - 이미 출도한 청년들의 귀환의사는 상당히 낮은 반면, 현재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미래 경남 정주의사는 상당히 높게 나타남
 - 현재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은 구직 및 취업 과정에서 다차원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경남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도 및 주관적 행복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 내 청년인구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타 지역 청년들의 유입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경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탈도한 경우, 청년들의 귀환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청년 정책은 한계적일 수밖에 없음
 - 물론 '연어형 지역인재 정착지원' 과 같이 지역출신 인재를 지역으로 다시 유입시키는 정책도 경남의 핵심생산가능인구를 늘리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지만, 한번 경남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유출된 인재들의 귀환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사실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책적으로는 오히려 현재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삶과 선택에 집중할 필요성이 높음
 - 기존 연구들은 현재 지역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의 삶과 선택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만 접근하였음(추주희·김지영, 2020)
 - 지역 내 청년을 위한 정책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사회적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회와 지역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경남 내 20대 청년들의 정주가능성, 그리고 그들의 삶의 만족도 역시 높아질 수 있음

- 특히 경남이 다양한 도전과 경험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인식되고, 이와 더불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어야 청년인구들의 정주의사를 증진할 수 있음

□ 상이한 지역 환경을 고려한 정책 설계

- 경남의 청년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서는 경남 내 도농 간 지역적 차이 문제를 고려해야 함
 - 경상남도는 매우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산업의 비중도 다르고, 이에 따라 인구 비중도 이와 함께 다르게 분포되고 있음
 - 따라서 특정 산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부분적인 문제해결 방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역 간 산업구조의 차이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수정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 관광중심지역 등 하위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하위 지역별 청년들의 욕구와 필요의 이질성에 주목하여 청년들이 처한 차별적 현실을 분석한 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섬세한 정책 설계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하위 지역 내 청년들과의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소통을 기획하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청년들의 현실적인 정책적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특성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여야 함
 - 중앙정부가 2023년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년의 지역사회 탐색 기회 제공을 지원하는 '청년마을지원', 주민공동체 참여 청년 관광사업체 지원하는 '청년두레 지원', 지역 자연적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사업개발을 지원하는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지역자원 활용 청년중심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청년마을기업운영', 청년농업인 창업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설치하는 '청년농업인 협업기반 조성사업' 등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청년정책의 예시라고 할 수 있음

2. 교육-일자리 분야

□ 지역 교육-지역 기업 연계 지역인재 양성

- 신규 고용이나 고용 유지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접근만으로는 청년의 지역 정주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수단의 다변화가 요구됨

- 지금까지 진행된 다양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정책들은 주로 청년을 채용하는 지역 기업에 신규 고용 및 고용 유지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한시적(1~2년)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주를 이룸

밀양시 사례

- 밀양시의 경우에는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청년 대상으로 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수행 중이며, '중소기업-청년상생 프로젝트'를 통하여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에게 2년간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중임. 또한 경남 사회적경제 '신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도 시행하고 있음
- 두 사업은 대체로 지역 내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이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대기업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인건비 지원 정책보다는 기업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정책이 필요함

- 지방의 거점도시들을 중심으로 고학력 인적자본이 지역 정착이 가능하게 하는 일자리 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 시행한 조사 결과 경남 청년들의 정주의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창원시, 진주시 등 경남의 거점도시이며, 적어도 이러한 거점도시에서조차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경남을 떠나는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도록 해야 함

- 주로 지역별 산업발전 계획과 인적자원의 수급을 연계하여 지역노동시장의 고용기회를 확보해야 지역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음

- 지역대학은 청년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지역 내 청년인구를 위한 지원 방안을 보다 세심하게 운영할 수 있음

- 따라서 경남 도내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내 거점대학들의 연계협력이 강화되어야 함

- 다만, 지역 대학이 다수인 경우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대학 내에서도 갈등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학 간, 대학 내 이해관계를 해결할 필요 있음

안동형 일자리사업단 사례

- 안동시는 핵심적인 산업(ABC 산업 - AI, Bio, Culture 산업)을 지역대학에 위탁하여 수행함

- 청년 일자리와 관련하여 단순 인건비만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외에 지역의 각급 학교와 연계하여 지역 기업 맞춤형 기술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기업이 지역 인재들을 적극 채용할 수 있는 선순환적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현재 교육부에서 전국의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LINC 3.0(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3.0) 사업⁹⁾을 참고하여 지역에 적합한 산학협력 모델 구축을 고려할 수 있음

충청남도 사례

- 지원 대상 청년과 기업을 세분화하여 지원하고 있음. 예컨대, 청년의 경우 직업계고 졸업자, 대학생, 청년 창업자 등으로 대상을 구분해 지원하고, 기업의 경우 지역 특화 또는 주력산업(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화학 및 바이오), 스타트업, 사회적경제 등으로 지원 대상 기업을 세분화하는 특성을 보임

-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대학교육은 지식의 차원보다는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고용연계와 관련한 것으로 확인됨
 - 경남 거주 20대 청년이 원하는 교육훈련은 취업교육(32.44%), 직업교육(31.44%) 창업교육(20.74%) 등으로 조사됨
 - 설문조사, 전문가의견조사, 면담조사에서 공통적으로 공모전, 인턴제, 경력 개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도출됨
-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대학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해줄 필요가 있음

9) 현재 LINC 3.0사업(사업기간: 2022년~2027년)에서는 '산학협력 성장 모델 확산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 및 기업가형 대학 육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사업 지원 대상을 기술혁신선도형, 수요맞춤성장형, 협력기반구축형으로 구분하여 선정된 전국의 4년제 대학교(대학원 포함) 또는 전문대학으로 구성된 사업단을 지원하고 있다.

- 경남에 거주 중인 20대 청년들의 정주의사가 높게 나타나더라도, 부족한 공모전, 인턴제, 경력 개발 프로그램 등을 이유로 경남을 이탈하게 되면, 다시 경남으로 돌아와 취업을 할 가능성은 낮아짐
- 따라서 또 다른 전환 시기인 구직 기간에 청년들이 경남 내에서 직업 교육을 받고, 원하는 직종에 맞는 경력을 축적할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청년들의 교육-일자리 연계를 위하여 지역 내 관련 프로그램 및 정보에 대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에서 청년과 다양한 사업장의 매칭뿐만 아니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러한 프로그램 정보에 대한 지역 내 청년들의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정책 대상 집단인 참여 청년에게 지원 혜택이 큰 정책이라 할지라도,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청년들의 기회가 박탈될 수 있음
 - 청년 일자리 관련 도내 부서, 지역 내 대학 및 지역의 취업지원센터에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청년창업(창농) 활성화 정책

- 본 연구에서 경남 거주 20대 청년에게 정주의사를 증진하거나 유출된 청년들의 귀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었을 때 ‘창업과 관련한 정책 지원’이 주요 정책으로 꼽힘
- 지역 내 창업환경을 개선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창업을 시도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내에는 현실적으로 청년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지역의 고령화로 인해 청년들은 보수적이고 경직적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기업으로의 취업을 원하지 않는 경향을 보임
 - 이는 청년들이 지역 내 정주를 위해 취업보다는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청년 창업 지원의 양적·질적 확충이 필요함
 - 지역에서의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업에 실패한 청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가 그들을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예: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 대출상환시점을 유예해주는 '대출연동대출' 제도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현재 경남의 청년창업지원 사업들은 지원 대상 규모(인원 및 금액)의 편차가 상당하며, 일부 사업은 지원 대상 인원이 10명 이하에 불과한 경우도 있어 실질적인 사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청년창업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체 사업에서 지원하는 인원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설계해야 함
- 특히 군 단위 지역의 경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현실적으로 이루기 어려운 실정 이므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창업 및 창농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3. 경남 어메니티 분야

□ 생활환경 조성 및 생계지원

- 지역에서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는 동시에 지역에서의 정주를 유도하려면 일자리 외에도 향후 결혼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의 가족형성과 유지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과 생계 지원 방안이 요구됨
-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청년들의 생활환경 조성 및 생계지원과 관련하여 주거비를 지원 하는 각종 정책들을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경남에서도 이와 관련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정책들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 외에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차료(월세)의 일부 또는 임차보증금(전세)의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청년층이 선호하는 공동주택이 다양하게 건설된 도시지역에 비해 노후된 단독주택의 비중이 높은 농어촌지역에서는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외에도 공동주택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신규로 건설하거나 기존 주택을 매입·보수하는 형식의 매입임대주택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 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이 필요함

□ 문화 및 대중교통 인프라 확보

- 현재 청년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도권의 풍부한 문화 인프라 및 편리한 교통에 대해 수시로 접하고 있어 기존 세대들보다 문화와 교통에 대한 더 큰 욕구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청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 및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이는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 단기적으로는 문화 및 여가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경남 근처의 광역시나 경남 내 도시에 구축된 문화 인프라를 함께 향유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양과 질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 문화서비스 이용이 어렵거나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제공하거나, 마을택시나 공유차량 및 환승 교통비 지원을 통해 생활 문화 인프라를 공유하는 대안을 제안함
-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청년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특히 지역 내 성공한 롤 모델을 제시하여 멘토-멘티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형성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문화 개선

- 지역 문화는 청년들의 일상 저변에 큰 영향을 미치며, 청년들이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지역 문화 또한 청년들, 특히 여성 청년들의 정주 또는 이주 의사를 결정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지역 내 남학생들은 주로 취업을 위하여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가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나, 여학생들은 취업과 관련된 사유가 아니더라도,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로 진출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큼
 - 이는 여성들이 지역에서의 남성 중심적인 문화를 견디기보다 해당 지역을 이탈하여 그러한 문화를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반영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음(박지영 외, 2021)
 - 이러한 경향이 비단 여성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구시대적이고 위계적인 지역 문화는 청년 전반의 지역 이탈을 가속화시킬 수 있음

- 따라서 경남의 보수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지역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경남 내의 지역 기업들이 여성 근로자 및 청년 근로자들이 원하는 유연한 근무환경, 기업 내 양성평등 교육 및 보육시설 확대 등을 통해 청년 친화적, 여성 친화적 일자리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함

□ 경남 거주 20대 청년에 대한 사회적 지지

-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에 비하여 자아존중감이 낮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으며, 상대적 박탈감¹⁰⁾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함(추주희·김지영, 2020)
 - 해당 연구는 지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느끼는 좌절감, 불안감, 무력감, 체념 등 부정적 감정과 이를 해소하는 긍정적 기제로서 사회적 관계망, 지인의 지지 등을 포착하였고, 이러한 긍정적인 기제가 오롯이 개인적이고 일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함
 - 본 연구에서 경남 거주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도출되었지만,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만족과 긍정이 열악한 현실과 타협한 결과로 해석하기도 함
 - 따라서 지역사회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사회적 경험과 관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경남에서의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를 통해 청년들의 삶에 대한 자신감 및 만족도를 증진시켜야 함
 - 지역 청년들은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인식할수록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을 주목할 만함(이순미, 2018)
 - 청년 고용률만 높이면 청년 문제는 모두 해결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추진되어온 기존 정책에서 청년들의 문화 환경, 주거 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점차 변화됨
 - 그러나 이 역시도 물질적·기술적 지원에 해당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청년들의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여, 지역 내 정주를 지속하는 방안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함

10) 경남을 포함한 지역의 20대 청년들이 교육이나 일자리 등 명확한 사유로 서울로 이주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서울에서 살아보기' 위하여 이주하는 경우도 많다는 현실을 면담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

- 농업분야를 제외하고, 문화나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역 내 청년의 성장을 도와줄 멘토 및 공동체가 부재한 것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유출되는 원인이 될 수 있음(박성원·박현석·전준, 2023)
- 지역 내에서 성공한 30~40대의 경험을 20대에게 나눌 수 있는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장기적으로 지역 문화를 개선해가야 할 것임
 - 공간이 마련해주는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 네트워크와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도 매우 중요함
 - 청년들이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주 지역을 결정하는 과정은 물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동료의 존재 여부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임

참고 문헌

- 권오규 & 마강래. (2012). 대학진학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지역연구, 28(4), pp.65-77.
- 김리영. (2019). 지역 간 특성차이가 서울시 청년층 이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역연구, 35(2), pp.49-57.
- 김유현. (2021). 경남 청년인구 유출 확대의 원인과 일자리 문제 분석. 중점정책연구 현안연구, 1-82. 경남연구원.
- 김유현 외. (2020). 경상남도 청년실태조사. 경상남도.
- 김현우. (2023). MZ세대 수도권 이동자의 직업 가치관 변화와 특징. KIET 산업경제, 2, pp.50-60.
- 김현우 & 강명구. (2020). 삶의 자기결정권 선호에 따른 밀레니얼 세대 청년층의 인구이동 특징. 한국지역개발 학회지, 32(5), pp.49-78.
- 문영만 & 홍장표. (2017). 청년층의 노동시장 격차 및 지역인재 유출요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연구, 25(2), pp.165-187.
- 박성원, 박현석 & 전준. (2023). 청년세대의 부정적 미래인식과 개선 방안. Futures Brief, 23(5). 국회미래연구원.
- 박지영 외. (2021). 경남 청년여성 인구유출 대응 방안.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 송용찬 & 김민곤. (2016).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들의 인구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30(3), pp.151-179.
- 엄창욱, 노광욱 & 박상우. (2018). 지역청년의 정주 및 귀환 결정요인: 대구지역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연구, 26(3), pp.259-283.
- 엄창환, 강보배, 신동훈 & 정현미. (2018). 청년인구 이동 문제 진단을 위한 청년 현실에 기초한 지역격차 분석 연구.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 오윤석, 황광훈 & 홍석현. (2022). 수도권 지역 청년층의 직장 이동과 임금의 변화. GRI 연구논총, 24(1), pp.123-152.
- 오은열 & 문채. (2016). 지역인구이동 변화에 미치는 결정요인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9(4), pp.67-92.
- 오현규, 김화연 & 박성민. (2016). 한국 여성 근로자의 성차별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28(2), pp.307-328.
- 유재연. (2015). 떠나는 자와 남는 자: 대학진학과 대졸취업 시 지역이동을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18(1), pp.191-219.
- 유정미. (2017).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단계의 성별임금격차 분석. 한국여성학, 33(1), pp.107-155.
- 이순미. (2018). 지방 중소도시 청년들의 다차원적 빈곤과 행복의 역설. 한국사회학, 52(4), pp.243-293.
- 이순아 & 이상록. (2018). 청년세대의 미래 자신감에 대한 지역 간 격차. 한국자치행정학보, 32(4), pp.291-314.
- 이윤형, 이주영, 김상우 & 김혜경. (2020). 울산광역시 청년정책수립을 위한 선행연구. 정책과제 2020-10, 울산연구원.
- 이찬영 & 이홍우. (2016). 청년층의 지역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과 전망. 경제연구, 34(4), pp.143-169.
- 이찬영, 조세형 & 류재준. (2016). 광주지역 청년층 인재유출 원인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지역개발연구, 48(1), pp.95-120.
- 이현국. (2019). 어머니티와 청년인구변화: 대전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46, pp.348-372.
- 추주희 & 김지영. (2020). 좌절과 불안을 마주하는 지역청년들의 대응과 전략: 구직 중 '자기반성' 서사를 중심으로. 한국융합인문학, 8(1), pp.141-168.
- Blatterer, Harry. (2010). The Changing Semantics of Youth and Adulthood. Cultural Sociology, 4(1), pp.63-79.
- Wyn, Johanna & Rob White. (2000). Negotiating Social Change: The Paradox of Youth. Youth & Society, 32(2), pp.165-183.
- 경상남도 청년정보플랫폼. <https://www.gyeongnam.go.kr>
-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주민등록연앙인구

부록

경남도 시행 청년정책

경남 거주	사업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청년 관광 창업 사관학교 운영 • 스마트 항만물류분야 프로그램-파이썬 마스터 초급 과정 • 경남 관광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 관광마케터 양성교육 • 경남관광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교육 인플루언서 교육 • 대학입학 장학생 모집 • 문해교육사 3급 양성과정 • 홈테크 생활기술교육 • 경남 ABC-Lab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 부트캠프
일자리/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 사업(드림카드) • 청년도전 지원사업 • 취·창업 컨설팅 프로그램 • 농협목우촌 또래오래 청년 창업지원사업 • 청년면접정장무료대여 사업 • 경남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 게임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청년예술기지 입주자 모집) • 별별창작소 수강생 모집 • 2023 경남 청년 영화활동 지원사업 • 2023 경남 청년예술인 발굴지원사업 • 2023 경남 콘텐츠코리아랩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 도내공연 지원사업 • 관사음악회 공연팀 모집 • 경남 청년양성평등 인식개선 공모사업
사회적 관계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 지원사업 • 14기 바람개비 서포터즈 모집 •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팀 모집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남도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 진주가좌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 청년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모집(창원시 의창구 소재)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 마음건강치료비 지원사업 • 경상남도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신청